

『 중구의 경관탐방 』

지리교육과 2학년 최보배

☞ 답사포인트

- 우리나라 도심부의 특색을 따라 중구의 경관을 살펴보자.
- 문화재 보존과 관리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생각해보자.

1. 명동거리

방송매체의 인터뷰 공간으로 가장 많이 사용 되는 곳, 패션과 문화의 중심이라 일컬어지는 곳, 자·타칭 젊음이 넘치는 거리, 서울을 한번 다녀온 사람이라면 어김없이 그 수많은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입은 옷들에 대하여 이야기 하게 만드는 곳.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고 오래된 성당인 명동성당이 소재하고 있으며, 충무로·을지로·남대문로 사이에 위치한 굴지의 우리나라 중심거리이다. 서울 특별시를 상징하는 변화가이지만 일제강점기에는 지금의 충무로인 본정(本町)보다 낙후된 지역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주택이었으나 일제강점기 충무로가 상업지역으로 발전하면서 인접지역인 이곳도 그 영향을 받아 상가로 변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지역이 상가지역이다. 큼직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3~4개씩 위치하고 있음은 물론 신세계, 롯데백화점 또한 위치해 있다. 한국의 금융 중심지이며 첨단 유행문화의 거리이기도 하다. 전국은행협회, YWCA, UNESCO회관, 로얄호텔 등과 다양한 종류의 소비재 상점들이 있다.

국내에서 연예인을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장소로도 유명할 만큼 명동은 그 누구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1번가' 이다.

명동의 어두운 모습은 명동 사채거리로 대변된다. 갖가지 캐피털, 일수와 대출을 간판에 내걸고 사채업으로 먹고 살고 사는 사람들의 사무실이 이 명동에 밀집해 있다.

하루 150만에서 200만 명 가량의 유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왕래하고 있으며 최근 어지러운 시국에 집회의 장소로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곳도 세종로와 더불어 중구 명동거리 일대이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주로 집회의 장소로 사용된 이곳은 4·19혁명과 6월 항쟁 등의 시발점은 아니지만 가장 꽃을 피운 장소로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다. 올해 5월부터 시작되었던 '광우병쇠고기관



〈 명동거리의 인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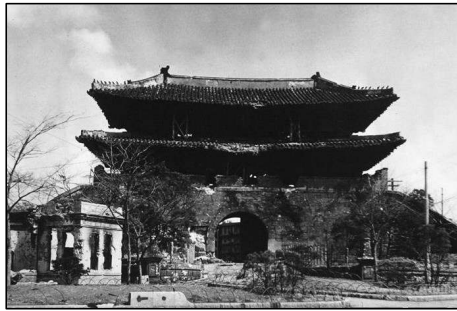
출처: <http://www.yeonhapnews.co.kr>

런 촛불집회'의 행렬은 항상 이곳을 지나가며, 시위행렬과 대치하는 전 의경들의 모습은 이제 흔하디흔한 익숙한 모습이 되었다. 노란 머리의 외국인들이 지나가는 것, 혹은 일본인들이 관광차 이곳을 지나가는 것 또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지가가 워낙 비싸고,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지대 지불능력이 뛰어나 명동은 명실상부한 최대의 상권이며, 이 높은 임대료 때문에 명동에서 상가를 여는 것을 망설이는 사람들 또한 많다. 창업 후에도 매출이 부진하면 높은 임대료 때문에 빠르게 점포를 정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명동은 업종 전환도 빠른 편이다.

2. 승례문

원래 이름은 승례문이나, 남쪽에 위치하였다고 하여 남대문이라고도 불리며 남대문로 4가에 위치한 성문이다. 서울 도성을 둘러싸고 있던 성의 4대문 중에 가장 수려한 외모를 갖추고 있으며, 국보 1호라는 칭호 속에 긴 시간 그 자리를 지켜온 승례문은 서울역 바로 앞에 위치하여 서울역에 하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곳이 서울'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주는 상징적 조형물이다.



〈 한국전쟁 당시 일부 파손된 승례문 〉

출처: <http://100.naver.com>

큰 문이어서 그런지, 승례문 주위에는 유난히 시장이 많으며(칠패시장, 배오개시장, 남대문시장) 남대문 자체는 최고질의, 지금은 희귀한 소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600년의 시간이 지나도 뒤틀림 하나 없이 깨끗한 외관을 유지할 수 있었다.

국보 1호의 위엄이 2008년 2월 11일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국의 전파를 탔다. 서울시민들의 탄식 속에 무너져 내리는 승례문의 모습은 지방 사람들의 입에서도 한탄이 나오기에 충분했다. 2006년 이명박 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 시절 중앙 큰 문을 시민들에게 개방한 후, 자유롭게 드나들던 시민들 중 국가보상에 불만을 품은 노인 한 명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으로 인하여 60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승례문은 초기 강경진압이 이루어지지 못함 때문에 결국 '전소'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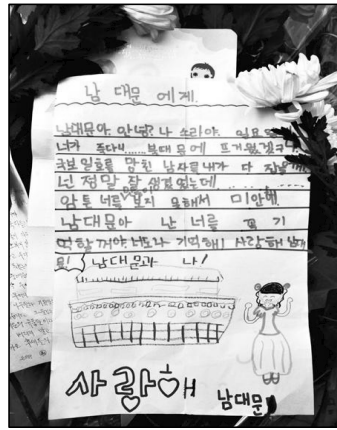
승례문은 소실 전 우리나라 다포계¹²⁾ 목조건축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건축물

12) 공포를 기둥 위 뿐 아니라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포작을 구성하는 것. '공포'란 지붕의 무게를 기둥에 전달하도록 구조된 짜임새.

이었다. 1950년 한국 전쟁 때 일부가 파손되어 1963년에 다시 복구 완공 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큰 전쟁과 사건들이 많았던 우리나라 역사의 모진 풍파를 견뎌내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승례문 전소에 대한 이야기와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고 말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국가적 차원의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의 랜드마크인 승례문을 그대로 복원하기 위해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서 동원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승례문복원 작업을 위해 승례문을 큰 펜스로 가려놓고, 승례문의 사진을 삽입해 놓았다. 복원 작업을 비공개로 진행하여 승례문의 잔해는 볼 수 없다. 우리도 승례문 화재 현장과 복원 과정을 온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해 우리의 문화재 의식을 한 단계 끌어 올릴 필요가 있다. 그 출발점은 펜스부터 걷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승례문 복원은 우리가 문화를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문화 수준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승례문이 무너지는 모습과 함께 마음도 함께 내려앉은 모든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처음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분명히 다시 찾아 올 테지만, 어쩐지 ‘복원된 승례문’은 우리 맘속에 있던 승례문과는 다를 것 같은 느낌이 든다.



〈 승례문에 남겨진 추모 편지 〉

출처: <http://www.joins.com>

< 읽을거리 >

- ‘승례문 화재’...관악산 火氣에 졌다? ‘풍수지리 괴담’ 난무

600년을 버티 온 관악산의 화기(火氣)에 결국 승례문이 무릎을 꿇은 것인가.

하룻밤 새 잿더미로 변한 국보1호 남대문의 화재사고를 둘러싸고 온갖 ‘설’이 난무하고 있다. 그중에는 이번 화재를 역사적·풍수 지리적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조선조부터 서울을 지켜온 4대문 가운데 남대문은 풍수지리상 관악산의 화기로부터 경복궁을 보호하기 위해 지어졌기 때문이다.

관악산은 예부터 불의 산(火山) 또는 화형산(火形山)으로 불렸다. 멀리서 보면 마치 톱날을 거꾸로 세워놓은 듯한 모양이 불꽃이 타오르는 형상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풍수가들은 관악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기가 왕궁을 범하는 것을 경계했다. 경복궁의 방향을 약간 틀어 지은 것도 관악산 화기로부터 조금이나마 비켜 서기 위함이었다. 경복궁 정문 광화문 양 옆에 해태 상을 세운 것도 관악산의 불기운을 제압하려는 뜻이었다. 해태는 물 기운을 몰아온다는 바닷 속 상상의 동물이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관악산의 화기를 다스리기 버거웠는지, 조선조 초 도성에서는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다. 이에 큰 대문을 도성의 정남쪽에 세워 관악산의 화기와 정면으로 맞서도록 했다. 이름도 승례문(崇禮門)이라고 정했다. 승례문은 글자로는 ‘예(禮)를 높이는 문(門)’이라는 뜻이지만, 예(禮)자가 오행으로 불 때 불(火)에 해당한다. 여기에 ‘높이다’라는 의미의 ‘승(崇)’자를 더해 수직으로 써내림으로써 타오르는 불꽃 형상을 이루도록 했다. ‘불은 불로써 다스린다’는 이화치화(以火治火)의 논리를 편 것.

이도 안심할 수 없어 남대문 인근, 지금의 서울역 광장과 대우빌딩 부근에 ‘남지(南池)’라는 연못을 만들었다. 이 역시 관악산의 화기를 누르기 위해서다. ‘남지’는 남대문이 관악산의 화기를 막다가 자신이 화를 당했을 때에 대비한 의미도 있다. 남대문의 용마루 끝머리를 치미(망새)로 장식한 것도 남대문을 화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조정을 화마의 위협으로 지켜내던 ‘남지’가 개발로 사라졌다. 게다가 관악산 화기를 막는 역할을 하던 광화문 해태상도 복원공사 때문에 치운 상태다. 결국 풍수적으로 관악산 화기를 막던 남지, 광화문 해태상이 모두 없어진 상태에서 승례문 혼자 불기운과 맞서다 무릎을 꿇은 것이다.

한 풍수가는 “공교롭게 이날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비서관 10명 중 5명이 서울대 출신이라는 인사가 발표되는 등 관악산(서울대) 화기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마침내 승례문이 굴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향일보 < 엄민용기자 margeul@kyunghyang.com >

3. 남대문 시장

서울특별시 중구, 승례문(남대문) 부근 동쪽에 위치한 종합재래시장이다.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게 이루어지던 승례문 근처에 형성되었던 시장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예로 가장 크게 들 수 있는 것이 남대문 시장이다. 일제강점기인 1922년 이후로는 일본인 회사에 의해 운영되었으나, 광복 후 상인연합회가 구성되었다.

1963년 건물주, 지주, 상인들이 공동출자한 남대문시장주식회사가 다시 발족되었고, 1964년에 '남대문주식회사'로 법인제도가 구성되면서 지금까지 남대문시장을 관리, 운영하며, 중앙관리조직의 전통이 남게 되었다

현재 남대문시장은 동대문시장과 함께 서울의 2대 시장 중 하나이다. 승례문을 기점으로 사방에 크고 작은 1만점 이상의 상점이 줄지어 서 있다. 이 시장에는 토산물/일용품/식료품/의료품 등을 취급하고 있다. 근처에는 명동, 한국은행, 국

민은행 본점 등이 있다.

야시장도 자주 열리며, 시끌벅적한 포장마차들이 즐비하여 운치 있는 풍경을 연출하기도 한다. 진짜 재래시장의 느낌이 물씬 나는 남대문 시장에는 현재는 전국 어느 재래시장에서도 잘 볼 수 없는 보부상들도 존재하여 이색적인 볼거리를 연출한다. 일명 ‘짜퐁’ 들을 비롯한 갖가지 값싼 옷가지와 액세서리들이 많이 팔리고, 족발을 비롯한 먹거리들이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역시 서울 관광코스에 여기가 포함되어있다는 점에서 유발되는데 남대문 시장의 일부를 보면 꼭 중국이나 베트남 시장 같은 느낌이 난다. 일본, 중국 관광객들을 겨냥한 약간은 빗바렌 한류상품들이 (연예인들의 사진이나 포스터, 김이나 제주도 초콜릿 같은 특산품, 홍삼과 인삼)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으며, 상인들 모두 일본어와 중국어에 능통하다. 일본어로 쓰인 간판이나 팻말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한국적인 분위기가 아닌 이국적인 분위기의 친근함을 연출하는 마케팅 방법으로 외국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실제로 남대문 시장이 외국인들에게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엄청났었으나, 현재는 고유가 고물가 시대에 접쳐 매출이 40~50% 가량 줄어든 상태이고, 여타 재래시장처럼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생각해보기

- ‘문화재 보존’에 관하여 많은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일본을 비롯한 문화 선진국들의 문화재 관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우리나라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문화재 보존의 사례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 참고 사이트 〉

- 서울특별시 중구청 <http://junggu.seoul.kr/junggu>
- 경향닷컴 <http://www.khan.co.kr>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